

“나는 에이스다”

KIA 윤석민 다승·방어율·탈삼진 단독 1위 질주

(13) (2.35) (126)

KIA 에이스 윤석민의 거침없는 행보가 마운드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2010년은 윤석민에게 최악의 시즌이었다. 심리적으로 흔들리며 손가락 부상을 당했고 결국 6승을 챙기는데 그치며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팀의 4강 탈락 빌미를 제공했다.

이후 광저우아시안게임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은 윤석민은 분주한 겨울을 보내며 '2011 시즌 최고의 해'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윤석민은 자신의 공언대로 거침없는 질주를 하면서 마운드에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윤석민은 “주중 삼성과의 경기가 중요했지만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 선발로 나선 이후 올스타전에 참가하면서 어깨와 등 근육이 뭉쳐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등판을 하지 못했다”며 “타자들이 부상 등으로 많이 빠졌고, 전날 로페즈가 부상으로 중전에 강판되는 등 불운에 부담이 많은 만큼 끝까지 경기를 책임지자는 생각으로 공을 던졌다”고 밝혔다.

이날도 복통을 호소하는 등 정상 컨디션은 아니었다.

윤석민은 “명치 끝이 아파서 힘들었다. 투구수

후반기 넥센전 무사사구 완봉승으로 스타트

“성적 욕심 안 내고 매 경기에 최선 다하겠다”

지난 30일 윤석민은 넥센과의 홈경기에 선발로 나서 생애 첫 무사사구 완봉승으로 시즌 13승을 챙겼다. 윤석민은 7월 15일 삼성과의 원정경기에서 1과인타 1사사구의 완벽한 피칭으로 시즌 두 번째, 통산 세 번째 완봉승을 거둔 뒤 후반기 첫 경기에서 다시 완봉승을 장식했다.

이날 9회까지 126개의 공을 던진 윤석민은 5개의 피안타로 넥센 타선을 막으며 다승 2위와 격차를 3승으로 벌렸다. 탈삼진도 12개를 뽑아내며 자신의 한 경기 최다 탈삼진 기록을 갈아치웠다. 방어율은 2.35까지 내려갔다.

126개의 탈삼진으로 2위 주키치(113개)와는 13개차, 방어율에서도 니퍼트(2.54)와의 차이를 벌리며 ‘트리플 크라운’을 위한 청신호를 켰다.

를 적게 가져가려고 공격적으로 했는데 생각보다는 투구수가 많았다. 하지만 어깨나 허리 등 다른 부위에 큰 이상은 없다”고 말했다.

무사사구 완봉승으로 후반기 스타트를 끊었지만 성적에 대한 욕심보다는 순간순간 경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윤석민은 “전반기 잘하다가 후반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도 있다. 후반기 첫 경기가 잘 풀려서 앞으로 운이 따를 것 같다”며 “하지만 지금부터 성적에 대한 욕심을 부리면 부상이 올 수도 있고,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점수를 안 준다는 생각으로 경기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날 것이다”고 앞으로의 각오를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일고·진흥고 16강

청룡기 겸 고교야구 주말리그 왕중왕전

광주일고와 진흥고가 청룡기 겸 고교야구 주말리그 왕중왕전 16강에 진출했다.

광주일고는 지난 30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울산공고와의 32강전에서 7과3분의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서동욱이 호투속에 4-0 영봉승을 거뒀다. 진흥고는 앞서 열린 부산고와의

경기에서 3-2 승리를 거두고 16강에 올랐다. 진흥고는 2일 오후 6시30분 신일고, 광주일고는 3일 오후 3시 휘문고와 8강 진출을 다툰다.

한편 31일 열릴 예정이던 동성고-경남고, 화순고-청주고 경기는 우천으로 취소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대진 LG 트윈스 유니폼

호랑이 등지를 떠난 이대진이 LG 트윈스의 유니폼을 입었다.

웨이버 공시를 신청했던 투수 이대진이 지난 30일 LG 유니폼을 입고 훈련을 시작했다.

1993년 진흥고를 졸업하고 해태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이대진은 강속구와 폭포수 커브를 앞세워 ‘에이스 오브 에이스’로 군림했지만 세 차례 어깨수술을 받으며 긴 재활의 시간을 보냈다.

이대진은 타이거즈맨으로 19년간 통산 281경기에 나와 3.54의 방어율로 100승 73패 22세이브를 기록했지만 올 시즌 한 차례 등판에 그치는 등 주전 경쟁에서 밀리며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현역에서 뛰고 싶다는 뜻을 밝혀왔던 이대진은 7월23일 웨이버 공시를 통해 정든 KIA 유니폼을 벗었다. 그리고 LG가 단독으로 영입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새 등지를 찾게 됐다.

LG는 웨이버 공시 양도금으로 KIA에 300만원을 주게 되며, 올 시즌 이대진의 잔여 연봉만 지급하면 된다.

이대진은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KIA팬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실적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걱정도 되지만 새로운 곳에서의 생활이 설레기도 하고 즐겁다. 야구 한다는 것 자체가 좋다. 새로운 팀에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선빈·로페즈·최희섭·이범호·김상현...

부상병동 KIA “날씨마저 안 도와주네”

우천 취소 없이 강행군

‘부상’으로 KIA의 8월 대박전에 비상이 걸렸다.

올 시즌 주전 선수들의 부상이 계속되고 있는 KIA에 또 다른 부상 악재가 겹쳤다. 지난 30일 KIA의 최희섭과 김상현이 각각 발가락 미세 골절과 광대뼈 함몰로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이날 윤석민과 원투펀치를 이루고 있는 투수 로페즈도 왼쪽 옆구리 통증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되면서 핵심 전력 3명이 동시에 1군에서 빠졌다.

최희섭과 로페즈는 비교적 부상 정도가 가벼워 2주 정도 후 복귀가 가능

할 전망이다. 김상현은 광대뼈 함몰 부위 수술을 받으면서 6주 진단을 받아 8월 복귀가 어렵다.

KIA는 올 시즌 3명이 수술대에 올랐다. 지난 4월 나지완이 발목 골절로 수술을 받았고, 7월 초에는 김선빈이 경기 도중 공에 맞아 코뼈 및 상악골 골절을 당해 병원 신세를 졌다. 나지완은 빠른 회복세로 예정보다 일찍 팀에 합류해 6월부터 경기에서 재 투입됐지만 김선빈은 이제 막 재활을 시작했다.

지난 26일 러닝을 시작한 김선빈은 31일 티배팅을 소화하며 처음으로 방망이를 잡는 등 예상보다 빠른 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지만 8월 중순은 지나야 복귀가 가능한 전망이다.

최희섭과 김상현 ‘CK포’가 동시에 빠진 가운데 해결사 이범호까지 허리 통증으로 주말 두 경기 선발에 제외되는 등 클린업트리오 부재 상황까지 벌어졌다.

하늘도 KIA를 외면하고 있다. 다른 팀은 우천으로 경기가 취소되면서 자연스럽게 휴식을 취하고 있지만, KIA는 31일까지 93경기를 소화하면서 두산·넥센보다 13경기나 더 치렀다.

무더위 속 강행군이 호랑이의 V11 가도에 무시 못할 악재로 떠올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 창단 10주년 엠블럼 제작

KIA 타이거즈가 창단 10주년 기념 엠블럼을 선보였다.

창단 10주년을 형상화한 엠블럼은 웅맹한 호랑이와 KIA의 고유 색상인 빨간색 위드마크를 활용해 호랑이의 강인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또 V10을 달성한 KIA를 형상화해 한국의 야구 명가의 자부심을 표현했으며, V11을 향한 도전과 의지를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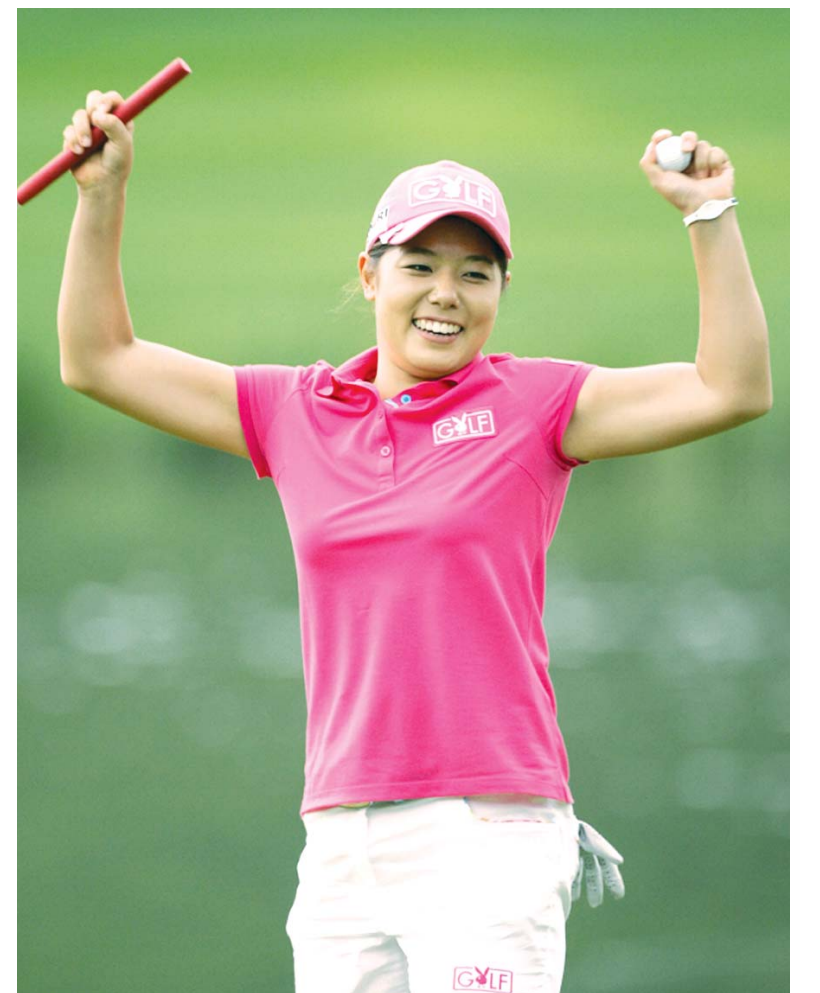
선수단은 지난 31일 넥센과의 홈경기에서부터 새로운 엠블럼이 부착된 모자를 썼다. KIA는 구단 기념품과 홈페이지, 각종 광



고물 등에 새 엠블럼을 활용할 예정이다.

KIA는 이날 창단 10주년 기념 경품 잔치도 마련, 입장객들에게 동남아 여행상품권과 47인치 3D LED TV 등을 안겼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변현민 히든밸리 여자오픈 우승 변현민(21·플레이보이골프)이 지난 31일 충북 진천 히든밸리GC에서 열린 히든밸리 여자오픈 마지막 라운드 연장 1번 홀에서 우승을 확정지은 뒤 환호하고 있다. <KLPGA제공>



엔틱 식탁, 좌탁, 거실장, 침대

ITALY



클래식 소파, 식탁, 침대

ITALY



카우치-20종류

ITALY

SINCE 1992

100% 이탈리아 가구 직수입 도·소매

동구 장동 58-15 동구청-전남여고 사이 장동로타리 홍스페이스 가구빌딩